

공급자가 수요자 찾아가 인쇄



◆ 목활자 인쇄방법을 재현하고 있는 권재희 선생(산청원계 권씨 목활자·유탁일 부산대명예교수 소장)

우리나라 인쇄문화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751년경에 간행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가장 방대하고 완벽한 대장경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판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나라로써 그 증거물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인쇄문화를 통해 인류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입증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쇄문화는 대부분이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지만, 인쇄 부수에 제한을 받아 지방과 민간에까지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

다. 따라서 16세기부터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서원·사찰과 같은 사시기관은 물론, 특권층에 있는 개인과 민간인들도 도처에서 목판과 활자를 만들어 필요한 책을 수시로 인쇄하여 각계각층의 수요를 충족하였다. 이때에 간행된 책들은 개인의 문집이나 문중의 족보 및 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 등의 인쇄를 촉진시켰고, 나아가서 상업 목적으로 하는 민간 수요의 책을 인쇄·보급 및 확산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인이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판각하여 찍어낸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 한다. 방(坊)은 저자, 즉 상고무역(商賈貿易)하는 곳을 뜻한다. 중국의 남송(南宋)시대에 서방(書坊)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목판을 만들어 책을 찍어낸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사(書肆), 방사(坊肆), 서방(書坊), 서포(書)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우리 나

라의 서사는 민간뿐만 아니라 관(官)에서도 운영하였으며, 또 책의 간행 방법도 목판 이외에 목활자와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인쇄하였음이 중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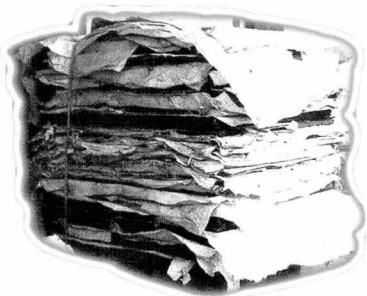
이러한 간행은 16세기 후기에 서울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 파급되었다. 1554년(조선 명종 9)에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고사촬요(攷事撮要)』의 서책시준(書冊市准)에 의하면, 중앙관서가 책판(冊板)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일반에게 판매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쇄에 소요되는 한지의 수량과 가격을 면포(綿布)와 백미(白米)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책판의 종류가 적어 전국적으로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서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민간인에 의해 판매를 하기 위해 간행된 사례는 서울에서부터 이루어 졌으나,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혼란기를 맞아 인쇄도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중기이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방에서는 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인쇄의 기능도 점차 살아나면서 지방의 방각본 인쇄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각본은 호남 지방의 완판(完板)·태인판(泰仁板)

및 금성판(金城板) 등이 있다. 완판은 서계(西溪), 완산(完山), 완서(完西), 풍패(豊沛), 완남(完南), 완구(完龜) 등에서 간행한 판본과 하경룡(河慶龍)이 간행한 판본을 총칭하는 것으로, 하경룡장판은 사람의 이름을 상호로 한 것이 특징이다. 태인판은 손기조(孫基祖),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의 방각본이 있다.

서울에서 만든 경판(京板)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상인들이 많이 모이던 중부를 중심으로 정동, 무교, 모교, 석정동, 유동, 합동, 미동, 용동, 포동, 세동, 남산동, 광고, 수표교, 광통교, 동현, 활동, 효교, 어청교, 송동, 야동, 자



◆ 목활자 보관상자 발견당시 모습(산청화계 심씨 목활자·유탁일교수 소장)

암, 홍수동, 동곡 등에서 간행 판매했다. 이들 경판은 지방의 방각본에 비해 서체와 판각술이 비교적 정교하다. 안성지방에서 간행된 안성판(安城板)은 간행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20세기에는 서점 또는 서림이라는 상호를 붙여 책을 간행하여 판매하였다. 대구지방인 달성(達成)과 달서(達西)에서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방각본이 간행 유통되었는데, 이것을 달판(達板)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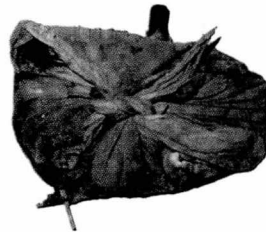
이들 지방에서 간행한 방각본은 아동의 학습용 교재를 비롯하여 과거 및 교육용의 경서, 역사서 및 시문류, 일

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서민들 사이에서 읽혀진 한글 소설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방각본은 일반과 서민들의 교육, 면학 및 독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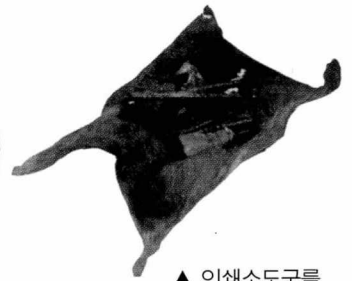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인쇄를 신속하고 편리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목활자를 만들어 적은 인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지방에서 문중의 현창을 위한 문집과 가문의 결속을 위한 족보 간행에 사용되었으며, 활자를 비롯한 인쇄도구 일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나 문중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로 인쇄하였다.

그러다 보니 활자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활자 함을 작게 만들었으며, 활자 배열도 운(韻)이나 부수(部數)에 따라 일정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택자(擇字)가 편리하도록 배열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즈음 인쇄와는 달리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다니며 수요자가 원하는 책을 간행해주는 인쇄업이 성행하였다.

중앙관서에서 주도한 금속활자 인쇄가 금속을 다루는 과학적 지식과 오랜 경험, 능숙한 기술의 산물이라 한다면, 지방의 목활자 인쇄는 신속성과 편리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발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목적에 있어서도 금속활자 인쇄가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주로 한 서적의 간행과 배포라는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지방의 목활자 인쇄는 구한말부터 20세기에 이르러 인쇄 출판활동이 주로 개



▲ 인쇄소도구를 싸놓은 보따리(산청화계 심씨)



▲ 인쇄소도구를 풀어 놓은 보따리(산청화계 심씨)

인 문집과 문중의 족보 간행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복합되어 왕권의 약화, 경제력의 지방 분산, 신분제의 붕괴로 인한 계급사회의 재편,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문중의 정체성 확립 등을 이유로 족보와 문집 등의 간행으로 나타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중반이후 20세기초에는 전통적인 기술의 발전보다는 저변 확대의 편리한 면이 특색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조선후기 민간에서는 목판과 목활자에 의해 이동이 편리하도록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다니면서 인쇄해주는 방법으로 주 간행물은 문집과 족보 등 가문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 활자상자를 풀지않은 상태

인쇄업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 속에 서양식 인쇄술이 들어오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전통적인 맥이 끊어진 상태다.

황정하 · 본지객원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실장)